



트레이드 렌즈
T R A D E L E N S

투자에 초점을 맞추다.

CRYPTO INSIGHT / No.01

디지털자산과 은행의 경계를 읽는 리서치

은행예금이 토큰이 되면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할까

토큰화 예금이 바꾸는 결제·정산 시장과
스테이블코인의 생존 조건

속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누구에게 보낼 수 있는가는 다른 문제다.

기업 자금의 은행 복귀 가능성과 공개 지갑망의 지속성을 나눠 보고,
은행의 토큰 발행이 누구의 사업 기회가 되는지 분석한다.



01 / RESEARCH VIEW

필요하다. 다만 필요한 이유가 바뀐다

은행 결제의 속도 차이보다, 연결되는 상대방과 돈이 머무는 시간이 중요해진다.

TradeLens 판단 | 전면 대체보다, 시장의 역할 재편이 더 설득력 있다

기업 자금관리와 은행 연계 정산에서는 토큰화 예금의 대체 가능성을 높게 본다. 반면 서로 다른 지갑·거래소·체인 참여자를 연결하는 결제형 토큰의 역할은 남는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은 단순한 24시간 전송에서 수취 범위·유동성·현금 전환의 신뢰로 이동한다.

판단할 영역	보고서의 결론	이유와 남은 조건
기업 자금·기관 정산	토큰화 예금에 유리한 경로	은행 관계와 자금관리 기능을 유지한 채 지급을 자동화할 수 있다. 단, 거래 상대방도 연결돼야 한다. [4]
공개 지갑·크립토 시장	스테이블코인의 효용 지속	은행 참여망을 공유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수취 가능성이 중요하다. 상환·보관 위험은 별도다. [7]
은행 간·국경 간 결제	승부를 가를 연결 단계	Agora의 실거래 시험은 진전이지만, 모든 통화의 상시 상용망은 아니다. [2]

이번 주제에서 바뀌어야 할 통념

“은행은 느리고 코인은 빠르다”만으로는 다음 시장을 설명하기 어렵다. 은행도 토큰을 쓰고, 공개 블록체인을 이용하며, 별도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발행기관의 이름보다 보유자의 권리와 네트워크의 개방 범위를 봐야 한다. [5] [6]

독자가 가져갈 한 문장

은행예금이 더 잘 움직이게 될수록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은 좁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은행망 밖의 상대방을 연결하는 능력까지 같아지기 전에는, 두 구조가 함께 쓰일 가능성이 크다.

분석 범위: 은행 예금채무의 토큰화와 준비금 기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알고리즘형 토큰의 가치평가와는 다른 주제다.



02 / LIVE EVIDENCE

실제 돈은 움직였다. 보급률은 아직 별개다

최근 발표를 서비스 제공, 실거래 시범, 향후 계획으로 구분한다.

UK Finance는 9월 24일 GBTD의 고객 시범거래 완료를 발표했다. 대환대출 완료 2건과 개인 간 거래의 조건부 지급을 다뤘다. 핵심 변화는 단순 전송이 아니라, 예금을 묶어 두었다가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하는 기능이다. [1]

사례·범위	확인된 단계	확인되지 않은 확대 해석
GBTD / 영국 파운드	여러 금융기관의 실제 고객 시범거래 완료 [1]	영국 전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전면 상용 서비스는 아님
HSBC / 기업 자금관리	참여 지역·고객 대상 TDS 서비스 제공 [4]	HSBC 밖 모든 은행·지갑과의 무조건적인 상호운용은 아님
Agora / 다통화 도매결제	2026년 7월 실제 가치의 은행 간 결제 시험 [2]	통제된 시험을 24시간 상용망의 처리 능력으로 환산할 수 없음

Agora 실거래 시험: 크기보다 무엇을 통과했는가

30건 총 시험 거래	6개 참여 통화	약 80초 개시부터 결제까지 평균
----------------	-------------	-----------------------

17개 시나리오·총액 약 80만 스위스프랑 상당. 통제된 시험의 결과이며, 처리 한도·상용 실적·타 결제망 대비 우위를 뜻하지 않는다. [2]

분석 | 발표의 수가 아니라, 마지막 단계의 연결을 본다

시장성을 판단할 증거는 “토큰을 만들었다”보다 다른 기관에 지급되고, 법정화폐 계좌로 돌아오며, 같은 고객이 다시 쓰는가다. 다음 질문은 참여은행 수의 증가가 아니라, 반복 사용과 실제 수수료·운영비의 변화다.



03 / CLAIMS & MONEY

토큰의 모양보다, 누가 갚는 돈인가

토큰화는 기록과 이전 방식을 바꾸지만, 상환 책임과 보호 조건을 자동으로 같게 만들지 않는다.

토큰화 예금은 이 보고서에서 은행 예금채무를 토큰으로 표시하고 이전하는 구조를 뜻한다. 준비금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의 상환 약정과 준비자산으로 연결된다. 둘 다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같은 청구권은 아니다. [4] [7] [9]

비교 항목	토큰화 예금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누가 책임지나	예금 관계가 유지되는 은행	약관상 발행사·상환 주체
이자와 수익권	예금 종류·계약에 따라 달라짐	USDC는 준비금 이자권을 보유자에게 부여하지 않음 [7]
자산·보호의 기반	은행의 재무·유동성 관리와 적용되는 예금 규율	분리된 준비금·상환 약정 등. 상품별 구조가 다름 [8]
접근 조건	은행·서비스 가입 및 상대방의 참여·계정 조건	지갑·체인·플랫폼의 지원 범위. 직접 상환은 별도 자격 [7]
예금보험	국가·예금자·통화·한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짐	은행이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예금보험이 붙지 않음 [6]

24시간 움직인다는 말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있다

토큰 전송이 가능해도, 외환을 교환할 상대방과 은행 계좌에서 꺼내 쓸 현금이 같은 시각에 준비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블록 생성 시간이 아니라 끝단에서 사용 가능한 돈을 받는 시간이 중요하다.

주의 | 예금이라는 이름도 모든 위험을 지우지 않는다

HSBC의 안내도 시장별 예금보호 조건을 구분한다. 토큰화 예금을 무조건 전액 보장 상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누구나 발행사에 즉시 상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 [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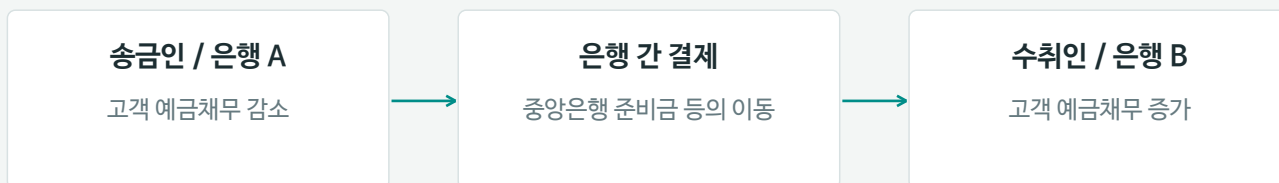
04 / INTERBANK SETTLEMENT

다른 은행으로 가는 순간, 난도가 달라진다

같은 앱에서 잔액을 옮기는 일과 은행 간 채무를 결제하는 일은 다르다.

은행 간 토큰화 예금은 토큰 전송만이 아니라 **은행 간 결제자산과 고객 예금의 연결**을 설계해야 한다. BIS의 분석은 중앙 은행 화폐로 은행 간 지급을 마무리하는 구조를 강조한다. 아래는 Agora와 관련 논의를 단순화한 개념도다. [3] [9]

은행 예금의 이전: 은행 A에서 은행 B로



예금과 결제자산을 같은 플랫폼에 연결하면 조건부·동시 처리를 설계할 수 있다.
그래도 은행·계좌·권한·현지 결제 규율은 남는다.

동일 발행사 스테이블코인의 이전: 지갑 A에서 지갑 B로



동일 체인·동일 발행사 토큰의 단순 이전 예시다. 브리지, 거래소 내부 장부, 발행·상환은 제외했다. 선 길이는 시간·비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7] [8]

분석 | 하나의 토큰을 쓴다는 편의와 하나의 발행사에 대한 의존

스테이블코인은 수취인이 같은 발행사의 돈을 받아들이면 은행 관계가 달라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대신 공통 발행사·상환 경로에 대한 의존이 생긴다. 토큰화 예금은 은행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여러 은행의 연결 규칙**을 더 넓혀야 한다.



05 / COMPETITIVE MAP

먼저 경쟁이 붙는 곳은 기업의 대기자금이다

시장 전체의 승자를 고르기보다, 자금의 용도별로 대체 압력을 나눠 본다.

분석의 출발점 | 지불 전에도 은행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급여·공급대금·증권 결제를 기다리는 기업 자금은 지급 기능뿐 아니라 회계·자금관리·은행 거래와 연결된다. 동일한 수취 범위와 이용 편의가 확보된다면 별도 토큰으로 환전하지 않고 예금 형태를 유지할 유인이 커진다. 이는 사업 모델에 대한 판단이지 현재 점유율 추정이 아니다.

수요 영역	TradeLens 판단	실제 경쟁의 기준
그룹 내 자금관리	토큰화 예금의 적용 경로가 상대적으로 분명	계열사·참여 은행의 범위, 이자·회계·24시간 운영의 연결
기관 간 증권·외환 정산	토큰화 예금의 잠재력이 크지만 상호운용이 전제	동시 결제·현금화·결제 최종성, 고객 승인과 법적 구조
공개 지갑·거래소·디파이	스테이블코인의 수취·유동성 효용이 남을 가능성	프로토콜·거래쌍의 실제 수용, 은행 계정 없는 상대방과의 연결
소액 국내 소매결제	토큰의 존재보다 비용·편의가 우선인 영역	기존 결제보다 총비용·오류·처리 과정이 실제 개선되는가
국경 간 송금	한쪽의 일방적 우위보다 회량별 경쟁	양국의 가입·규제·외환 유동성, 현지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가

정성적 시장 구분이며 점유율·채택률·투자등급을 뜻하지 않는다. 기관 서비스·시범거래·상환 구조를 바탕으로 한 TradeLens 분석. [\[1\]](#) [\[2\]](#) [\[4\]](#) [\[7\]](#)

중요한 반대 논리: 상대방이 없으면 좋은 예금도 결제수단이 아니다

이자와 은행 신뢰만으로 사용망을 대체할 수는 없다. 거래 상대방이 특정 토큰만 받거나 은행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면, 토큰화 예금은 먼저 다른 돈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 전환 지점이 스테이블코인에 남는 기회이자 추가 비용이다.

새로운 압력 | 거래는 늘어도, 준비금 잔액은 덜 늘 수 있다

자금을 예금에 두고 지급 직전에만 토큰으로 바꾸면, 거래량이 늘어도 평균 토큰 잔액은 덜 늘 수 있다. 발행사의 과제는 반복 결제량을 준비금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다. 조건부 분석이며 실제 잔액 감소를 뜻하지 않는다.



06 / BANKS ON PUBLIC NETWORKS

은행 대 코인이라는 구도는 이미 불완전하다

공개 블록체인 위의 은행예금과,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

사례 A | 은행예금도 공개 블록체인에서 사용될 수 있다

Lloyds는 2026년 1월 공식 발표에서 Canton에 발행한 토큰화 예금으로 Archax의 토큰화 영국 국채를 매입한 거래를 설명했다. 거래 후 자금은 기존 Lloyds 계좌로 돌아갔다. 공개 네트워크 이용과 은행 예금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는 사례다. 전 고객 대상 개방형 서비스의 보급을 뜻하지는 않는다. [5]

사례 B | 은행이 발행해도 예금이 아닐 수 있다

SoFi는 5월 27일 은행 앱에서 SoFiUSD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토큰화 예금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향후 계획으로 제시했으며, 별도 예금 약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출시된 스테이블코인과 예정된 예금 전환 기능은 다른 단계다. [6]

구분	네트워크·상품	보고서가 읽는 의미
Lloyds 사례	공개 체인 / 토큰화 예금	공개 체인이라는 이유로 무허가 이용 상품이 되지는 않음
HSBC 서비스	은행의 사설 체인 / 토큰화 예금	같은 예금이라도 접근·참여 범위가 다름 [4]
SoFiUSD	공개 체인 / 은행 발행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은행이어도 토큰 자체는 예금과 다름 [6]

분석 | 경쟁의 단위는 발행기관이 아니라 권리와 연결 범위다

한 금융회사가 예금·스테이블코인을 함께 제공하고 고객의 목적에 따라 전환을 지원하는 구조도 가능하다. 시장은 한 종류의 돈으로 통일되기보다 서로 다른 청구권을 한 화면에서 다루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SoFi는 자사 결제형 토큰이 예금이 아니며 FDIC·SIPC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고지한다. 은행 발행을 보호 보증으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6]



07 / ECONOMICS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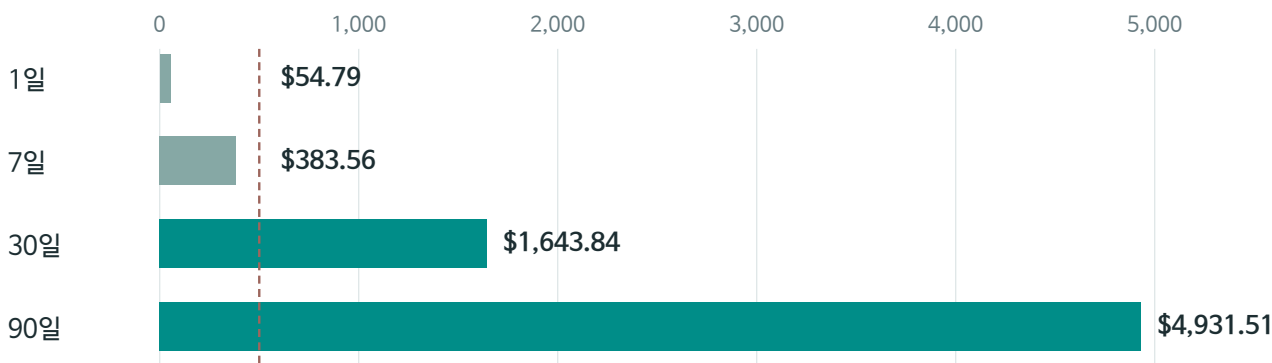
이자 2%p의 우위도, 짧게 쓰면 작다

설명용 가정 모델 | 결제 기능과 접근 조건이 같을 때만 순수한 경제성 비교가 가능하다.

가정 | 같은 달러 자금 100만달러, 연 순수익률 차이 2%p

비수익형 결제 토큰 대신 예금으로 잠시 전환했다가 다시 결제 토큰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가정한다. 왕복 추가 전환 비용을 원금의 5bp(0.05%) = 500달러로 두고, 보유기간에 따른 추가 이자와 비교한다. 실제 예금금리·상품 비용을 나타내지 않는다.

보유기간에 따라 얻는 추가 이자와 왕복 전환비용



점선: 왕복 추가비용 \$500 / 막대: 비용 차감 전 추가 이자

산식: 추가 이자 = \$1,000,000 × 2% × 보유일수 ÷ 365. 모두 0에서 시작하는 금액 비교이며, 막대 순서는 균등한 날짜 간격을 뜻하지 않는다.

전환비용을 메우는 데 걸리는 시간

왕복 추가비용	차이 1%p	차이 2%p	차이 3%p
5bp	18.3일	9.1일	6.1일
10bp	36.5일	18.3일	12.2일
20bp	73.0일	36.5일	24.3일

손익분기 보유일수 = 365 × 전환비용 ÷ 연 수익률 차이. 세금·가격변동·가입비·신용위험·유동성 차이는 제외했다.

해석: 2%p·5bp 가정의 손익분기는 약 9.1일이다. 오래 대기하는 자금에는 이자 차이가 중요해지고, 곧 지급할 자금에는 접근성과 전환 마찰이 더 중요해질 수 있다. 단, 상대방에게 보낼 수 없다면 이 계산의 전제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08 / SETTLEMENT & LIQUIDITY

동시결제는 위험을 줄인다. 현금은 별개다

지급 실패 위험, 사전 유동성, 법정화폐 사용 가능 시각은 각각 다른 문제다.

동시결제는 서로 연결된 지급이 모두 완료되거나 모두 실행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방식이다. 다만 즉시 총액결제와 차액 결제는 준비해야 할 유동성이 다르다. BIS Agora 보고서도 상시 운영과 유동성 관리, 외부 결제시스템 연결을 별도의 설계 과제로 다룬다. [3]

단계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문	사업비용에 남는 항목
고객·거래 확인	지급 전에 고객확인·제재·자금세탁 위험 확인이 완료돼야 하는가	심사·통제·예외 처리 인력
자금·외환 준비	필요한 통화와 담보가 지급 가능한가	사전 유동성·외환 스프레드
법적 결제 최종성	장부 변경 이후 어느 시점에 지급의 법적 효력이 확정되는가	법률·계약·운영 규칙
조건의 확인	물품 인도·증권 이전 등 외부 조건을 누가 신뢰성 있게 알려주는가	외부 데이터·분쟁·오류 대응
현금 사용	토큰을 받은 뒤 은행 계좌에서 즉시 쓸 수 있는가	현금화 경로·영업시간·한도

시간 측정의 시작과 끝이 중요하다

Agora의 실거래 시험은 정해진 시간 구간에서 진행됐고, 사전 준법 점검과 수동 외환 확인 등을 포함한 운영 절차를 사용했다. 시험 구간의 약 80초를 고객 가입부터 현지 인출까지의 보편적인 처리시간으로 읽을 수 없다. [2]

분석 | 빠른 장부보다, 낮은 총비용의 완결된 거래가 경쟁력이다

오류·대사·예외 처리와 결제 위험을 줄이는 방향은 유효하다. 다만 남은 유동성 비용과 은행 연결 비용까지 포함해야 경제성이 보인다. “24/7”이라는 기능명만으로 수수료와 운영비가 더 낮다고 결론내리지 않는다.



09 / KOREA & CURRENCY

원화 결제 혁신과 달러 수요는 같은 시장이 아니다

돈의 형태가 바뀌는 것과, 보유하려는 통화가 바뀌는 것을 분리한다.

Agora 실거래 시험에는 원화와 한국은행이 포함됐다. 참여 금융기관에는 하나·KB국민·NH농협·신한·우리은행이 기재돼 있다. 이는 한국 금융권도 다통화 정산 구조를 검토한다는 근거이지, 국내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전면 개방됐다는 뜻은 아니다. [2]

질문	무엇이 바뀌는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원화 예금의 토큰화	원화 지급의 조건부 실행· 디지털 자산 정산 방식	달러 자산을 보유하려는 수요 자체의 대체
달러 예금의 토큰화	은행 내 달러의 이동·운용과 거래 상대방 연결	국내 이용자의 자동 가입 자격, 외환·보호 규칙 면제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	지원 지급·플랫폼에서의 달러형 결제 토큰 접근	원화 가치의 고정, 환전·보관 위험 소멸

새로 봐야 할 변수는 중개자의 연결 범위다

한국은행의 9월 공개 연구 요약은 법정화폐 - 스테이블코인 거래쌍과 글로벌 중개자 참여가 가격 통합과 외환시장으로의 충격 전달을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의 한국 표본에서는 수요 압력이 환율보다 토큰 프리미엄에 주로 반영됐다. 이는 해당 시장구조에 대한 결과이며, 향후 모든 상황의 불변 법칙은 아니다. [10]

분석 | 원화 토큰이 생겼다는 이유로 달러 토큰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한국에서 볼 관전 포인트는 “은행이 토큰을 발행했나”보다 누가 가입하고, 어떤 통화로, 어느 상대방에게 보내며, 어떻게 환전·인출하는가다. 원화 지급망의 고도화와 달러 접근 수요는 서로 겹치지만 완전히 같은 시장은 아니다.

한국은행 공개 요약의 실증 결과를 인용했다. 각국의 외환·가입·보호 규정은 개별 서비스에 따라 적용된다.



10 / VALUE CAPTURE

은행이 토큰을 쓴다고 코인 보유자가 버는가

산업 채택, 사업자의 수익, 공개 토큰의 경제적 권리를 세 단계로 나누어 본다.

핵심 판단 | 이번 변화는 먼저 결제·수탁·연결 사업의 문제다

이용기관이 늘어도 수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는 계약에 달려 있다. 고객과 예금을 유지하는 은행, 상환·유통망을 제공하는 발행사, 연결·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제성이 먼저 변한다. 상용 채택을 특정 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연결할 근거는 없다.

주체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경로	반드시 확인할 비용·조건
은행	기업 자금관리·결제 관계 유지, 거래·서비스 수수료	예금 조달비용, 자본·유동성, 통합·운영·규제 대응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준비금 수익과 결제망의 배포·서비스 수익	유통 보상, 상환·보관 비용, 평균 잔액과 실제 수익률
지갑·거래·결제 플랫폼	고객 접점·환전·현금화·자금관리 기능	고객 유지·유동성·총수수료, 여러 화폐를 잇는 실행력
연결 기술·서비스 업체	구축·사용량·운영 계약	유료 계약, 갱신·반복 사용, 고객 의존과 유지비
공개 네트워크 토큰	설계상 수수료·보안 수요 등	해당 토큰이 꼭 필요한지, 사용 증가가 가치로 전달되는지

위 표는 수익 경로의 분석 틀이며 특정 사업자의 확정 매출·마진을 뜻하지 않는다.

사례의 이름과 토큰의 수익권을 혼동하지 않는다

GBTD의 플랫폼 개발에는 Quant가 참여했다. 이 사실은 기술 사업의 역할을 보여주지만, 공개자료만으로 QNT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현금흐름이나 확정 수요를 산정할 수는 없다. 같은 기준을 은행이 사용하는 모든 네트워크·토큰에 적용해야 한다. [1]



11 / OUTLOOK & FALSIFICATION

스테이블코인의 방어선은 속도가 아니라 연결성이다

성장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따라오기 어려운 효용이 무엇인지 더 엄격하게 본다.

TradeLens 종합 판단

기본 시나리오는 토큰화 예금과 스테이블코인의 공존·역할 분화다. 은행 연결이 충분한 기업·기관에서는 예금형 정산이 매력적인 선택지가 된다. 공개 지갑과 서로 다른 참여망을 연결하는 영역에서는 결제형 토큰의 효용이 남는다. 경쟁은 총발행량보다 반복적으로 머무는 잔액과 고객 접점을 두고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찰 시나리오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	의미
은행망의 대체 압력 확대	은행 간 반복 거래·통화 확대, 조건부 지급의 실제 유료 사용	기관 대기자금에서 스테이블코인 의존 완화
참여망의 분절 지속	가입·통화·영업시간 제약, 수취 상대방이 여전히 제한적	망 사이를 잇는 토큰· 현금화 사업의 역할 유지
한 앱에서 복수 화폐 운용	예금과 토큰 간 전환 서비스의 실제 이용·총비용 개선	단일 승자보다 고객 접점을 확보한 플랫폼이 중요

시나리오는 분석 가정이며 실현 확률·가격 전망이 아니다. 발표된 계획과 실제 운영 결과는 구분한다.

이 결론을 바꾸게 할 세 가지 증거

- 첫째, 여러 은행·국가·지갑에서 동등한 접근성과 현금화를 제공하는 예금망이 실제로 상용화되는가.
- 둘째,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줄어든 구간에서 평균 잔액·고객 유지·비용 이후의 이익이 어떻게 변하는가.
- 셋째, 은행·토큰 전환이 쉬워질수록 기존 발행사보다 연결 플랫폼으로 수익이 이동하는가.

보고서가 남기는 답

스테이블코인은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보다 빠르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은행예금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대방과 시장을 연결하는 효용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



12 / SOURCE REGISTER

핵심 주장과 공식 원문을 연결한다

본문의 청록색 출처 번호와 아래 제목을 누르면 해당 원문으로 이동한다.

01. UK Finance | 토큰화 파운드 예금의 실제 고객거래 완료

2026.09.24 발표 · GBTD 시범거래·참여기관·조건부 지급 · [원문 열기](#)

02. BIS | Project Agora — Real-Value Testing

2026.07 실거래 시험 · 기준일 공개자료 · RVT 결과·참여 통화·기관·시험 운영조건 · [원문 열기](#)

03. BIS | Project Agora: A shared programmable platform

2026.05 보고서 · 결제 구조·유동성·프로토타입 범위 (본문 pp.12, 82, 86) · [원문 열기](#)

04. HSBC | Tokenised Deposit Service

2026.09.29 기준 서비스 안내 · 기관 고객·참여 네트워크·통화·보호 조건 · [원문 열기](#)

05. Lloyds Banking Group | Lloyds·Archax의 공개 블록체인 예금 거래

공식 게시 2026.01.20 · Canton의 토큰화 국채 매입·기존 계좌 전환 사례 · [원문 열기](#)

06. SoFi | 은행 앱 내 SoFiUSD 출시

2026.05.27 발표 · 출시 범위·예금 전환 계획·상품 위험 고지 · [원문 열기](#)

07. Circle | USDC Terms

2026.09.29 기준 약관 · 상환 자격·준비금 이자 권리·접근 제한 · [원문 열기](#)

08. Circle | Transparency & Stability

2026.09.29 기준 공개자료 · 준비금 구성·분리 보관·공시 체계 · [원문 열기](#)

09. BIS Bulletin No.73 | Stablecoins versus tokenised deposits

2023.04.11 발간 · 화폐의 단일성·은행 간 결제의 분석 틀 · [원문 열기](#)

10. 한국은행 BOK Issue Note | Stablecoin - FX Linkages

2026.09.03 게시 · 중개자 참여와 외환 연계 — 공식 공개 요약 · [원문 열기](#)

자료의 사용 범위

기관·회사 자료는 해당 기관의 설명과 서비스 조건으로 인용했다. UK Finance의 9월 발표, BIS의 7월 시험, Lloyds·SoFi의 과거 발표를 같은 시점의 신규 사건으로 합치지 않았다. 오래된 연구는 구조 설명에 사용했으며 현재 시장 규모로 환산하지 않았다.



13 / METHODOLOGY & USE

작성 기준·면책고지·보고서 이용 안내

확인 사실, 기관·회사 계획, TradeLens의 해석과 설명용 가정 계산을 구분한다.

항목	적용 기준
자료 기준	2026.09.29. 기관·회사 발표와 공개 서비스 안내를 사용. 개별 사건일과 게시일을 구분.
분석 대상	은행 예금채무의 토큰화와 준비금 기반 결제형 스테이블코인. 기관·개인, 통화·참여망의 범위를 구분.
자료 인용	공식 자료 10건. 시험·상용 서비스·향후 계획을 분리하고 기관 발표의 범위를 넘어 채택률·수익을 추정하지 않음.
가정 모델	8쪽의 원금·수익률 차이·왕복 비용·보유기간은 설명용 입력값. 실제 상품금리·비용·투자수익 예측이 아님.
제공 범위	시장·사업구조 분석.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개인별 투자자문 미제공.

1bp = 0.01%p. 이자 모델은 365일 단리 기준이며 세금·신용위험·유동성·가격 변동·가입비는 반영하지 않는다. 표·도식은 TradeLens가 재작성했으며 원기관의 승인·보증을 뜻하지 않는다. 법적 권리의 비교는 제시한 상품·자료 범위에 한하며 개별 서비스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

작성 안내: 본 보고서는 자료 조사·분석 및 본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활용했습니다.

면책고지

본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시장 및 기업의 사업구조·성장성·수익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매수·매도 의견·시점, 적정가격·목표가격 및 이용자별 투자자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록 정보와 분석은 작성일 기준이며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망·추정 및 예시 계산에는 불확실성이 있으며, 원금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판단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 법령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트레이드렌즈는 본 보고서 이용에 따른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및 이용 제한

본 보고서의 서술·도표·디자인·편집 및 구성 중 트레이드렌즈가 권리를 보유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됩니다. 개인 열람·보관 외에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편집·번역·재가공하거나 복제·전송·재게시·재배포·판매할 수 없습니다. 유료·무료 제공 및 파일·화면 캡처 등 형태를 불문하며, 로고·출처·권리표시를 제거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이용과 제3자 자료의 개별 이용허락조건은 그에 따릅니다. 공유는 트레이드렌즈 공식 게시페이지의 원문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